

가시응애 방제 요주의

주요한 시기선택, 효율적 방제 잊지말자

봉군 월동단계에 접어 든 요즘, 일부 회원들은 "가시응애 전염이 끊긴 줄 알았더니 생각 외로 월동벌 마무리 과정에서 보니 가시응애가 바글바글, 어쩔 어쩔 나... 심각하다"고 하소연 해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응애약제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도 이러니 약효가 없기 때문이라며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다급한 예기를 접하고 보니 난처하고 어이없기도 하다. 가시응애 오염이 끊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위험 천만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양봉가가 있음으로 해서 이웃 양봉가에게 오염을 전파시켜 놓으니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지는게 아닌가 싶다.

우리 국내에 꿀벌응애 하나로 큰 피해를 낳기 시작한 건 약 30년전 68년부터이다. 지금도 이 꿀벌응애가 같은 속, 가시응애가 전면에 나서 극성을 부려서 그렇지 가시응애가 단절된 건 아니잖은가. 가시응애를 겨냥한 방제에 주력하다 보니 꿀벌응애도 덩으로 구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이 때는 가시응애 구제에 운동 난리를 부린 탓인지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 탓으로 전염기생 밀도가 낮아져 진정 기미를 보일 뿐이었다. 금년 6월 본보에서 필자는 "가시응애 최성기는 6~9월이고, 아카시아 유밀기를 끝낸 직후 바로 이때가 가시응애 구제에 최적기임으로 구제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주지시킨 바 있다.

양봉과학연구소 우건석 박사는 올 10월달 양봉현장 조사과정에서 "가시응애 기생밀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면서 염려하고 있다. 실제 목격할 경북 영덕군 3개 양봉장, 경북 상주시 3개 양봉장 등에서였고, 이중 어느 양봉장에서는 놀랄 정도의 극심한 기생밀도를 보여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본협회 상담전화

로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왔다. 그러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선진(?) 양봉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들이 여기하는 노하우를 요점 정리해 보자.

▲조춘벌 축소편성시에 양자 쪽의 공소비를 봉군 중심으로 옮겨 착봉소비로 전환시키고 월동 중에 진행중이던 육아봉개충 소비는 다소간 불문, 아깝다 생각 말고 과감히 소상 밖으로 빼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조춘봉군을 전부 편성한 다음, 즉시 빼내 둔 육아소비를 밀도로 깎아 흰종이를 간 다닥 위에 다 육충을 모조리 털어내 확대경으로 자세히 검사해 보고, 응애가 한 마리라도 눈에 띄면 새로 편성한 봉군의 성충품에 이미 가시응애가 붙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즉각 약제처리를 서둔다. 떨켜진 육충에서 응애류가 전혀 안보인다면 일단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다. 만약 혼연제나 훈증제를 막론하고 일단 약제처리를 단행한다면 월동 중 체력이 쇠잔한 봉군으로 장려사양·화분급여로서 벌들의 활기가 돌아 체력이 회복된 다음 약제처리를 해야 봉군 피해를 줄이면서 구제할 수 있다.

▲아카시아 유밀기가 끝나기 바쁘게 거의가 공소비로만 채워진 바로 이때가 가시응애 구제 최적기. 이 때는 조춘벌과는 달리 활기 넘친 벌들이므로 주저없이 연속적 3-4회 구제처리가 가능하고 건강한 육아봉으로 키울수 있다.

▲분봉군 수용시에도 마찬가지로, 앞의 방법으로 신왕의 산란 시작 무렵에 응애구제를 철저히 한 다음 육충봉개 소비로 육성해 나간다.

▲또 한가지 기회는 늦 가을철 육충봉아 출방되는 정도에 맞춰 월동식량을 점진적으로 저밀시키면서 100% 월동저밀이 완료된 다음, 그 양봉장을 떠나 다시 마땅한 월동포장 장소로 이동할 경우 이동중인 봉군상자에 훈증제 한 장

씩을 끼운채 이동시켜 월동장소에 그대로 내려 놓고 월동포장으로 마감한다. 이상 4가지 방법과 같은 요령을 보면 이유는 간단하다. 봉개충이 없는 기회가 응애방제 최적기. 조춘 첫내검시 과동중에 형성된 봉개충 속에는 일단 응애가 기생된 것으로 보고 새로 산란·육아시켜 건강한 벌로 육성시킨다는 것. 이러한 응애구제의 주요한 시기에 적은 약품비로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육아봉 형성이 진행된 다음에야 응애기생이 만연된 사실을 발견하여 방제를 서둘러 제아무리 약효가 뛰어난 약제를 동원한들 위 4가지 방법과 같은 효율성 방제에 비하면 그 열배, 백배 이상의 노력과 아까운 약품 값만 탕진하게 될거라고 경고한다. 이런 조건에서 육아된 소비봉관을 보면 장관처럼 귀 채워진 모양을 볼수 있어야 하며, 그게 바로 건강한 벌을 키우는 비결이란다. 단 한번의 방제약을 쓰더라도 유효한 시기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못한 구태의연한 약제 남용은 꿀벌의 스트레스·내성만 잔뜩 키우는 꼴이 된다.

4지역서 가을철 회원단합대회 열어 충남·강원·전남북지회서

지난 9월20일 충남지회가 처음으로 가을철 회원단합대회를 청양군 칠갑산국립공원에서 열어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룬데 이어, 지난 10월24일엔 강원지회도 영월군에서, 또 10월30일엔 전·북지회서도 연례행사로 가을회원단합대회 행사를 잇달아 열었다.

전·남북 행사는 올해로 12번째 행사로서 장성택유원지서 개최했다. 전남지회와 전북지회 간에 주최 바톤을 격년제로 넘겨가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남지회가 주최했다.

곤충들은 어떻게 시간을 지키나 케이블TV-Q채널(25번) 11/13 밤 9시 자연다큐멘터리 '곤충의 세계' 방영

여왕벌·일벌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된 꿀벌집단에는 '순찰'이 임무인 벌들이 있다. 새벽이 오면 아직 세상이 어두워도 순찰벌들은 어김없이 일벌들을 깨우러 돌아다닌다. 시계도 볼 줄 모르는 곤충들이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을까.

Q채널(25번)이 11월3일 밤 9시 방영할 자연다큐멘터리 '곤충의 세계'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곤충들의 모습을 담았다. 케이블TV 자체제작 자연다큐멘터리로는 두 번째 방영되는 것으로 60분 2부작이다.

케이블TV 최초의 자연다큐멘터리는 역시 Q채널이 만들어 지난해 9월 방영했던 60분 2부작 '곤충의 집'. 이 프로그램은 96년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 자체제작 최우수 프로그램에 주는 '케이블TV 대상'을 받은 바 있다.

1부 '잠들지 않은 숲속, 곤충의 24시'에서는 규칙적인 곤충들의 하루일과가 그려진다. 대표적인 경우가 등산으로 하루를 보내는 나비들. 아침이면 산을 오르기 시작

해 점심때면 산꼭대기에 도착하고, 저녁이면 다시 산밑으로 내려온다. 또 곤충들이 이처럼 정확히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설명도 곁들여 진다.

야행성 동물인 딱정벌레가 밤에 달팽이를 잡아먹는 모습도 볼거리.

2부 '또 하나의 시간, 곤충의 계절나기'가 담는 것은 곤충들의 일생. 특히 꿀벌집단의 영도자 격인 여왕벌의 일생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한 집단이 젊은 여왕벌과 늙은 여왕벌을 동시에 모시는 진귀한 장면도 잡아냈다. 이는 보통 여왕벌이 늙어 산란능력이 떨어지면 새로 젊은 여왕벌을 추대함과 동시에 내쫓긴다는 통념과 크게 다른 것이다. 그 얼마 뒤 아예 알을 낳을 수 없게되자 일벌들이 늙은 여왕벌을 죽여버렸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이를보다는 오래 살지만 그래도 길어야 일주일 넘기지 못하는 하루살이의 생애도 2부의 주요 이야기다. '곤충의 세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지리산·경기도 가평군에서 촬영했다.

헝가리 밀원용 아카시아 종자 도입 능력 갖춘 양봉가에 분양할 터



아카시아나무연구회(회장 임경빈 박사)는 최근 헝가리산 붉은꽃 아카시아 종자 8kg을 국내에 도입, 분양희망 양봉가를 물색 중이다. 이제까지 아카시아는 뿌리잡목에 의해 번식해야만 빠른 성장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지난 6월 헝가리 현지조사 결

과 헝가리서는 씨앗과종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었다.

임박사는 헝가리 현지조사 탐방 때 협조를 요청했을 때 헝가리 임업연구소 측은 98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반응을 얻었으나, 임박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번에 일이 앞당겨 졌다.

분양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본 협회로 신청해 주시면, 임박사께서 분양희망자와 직접 면담해보고 육림기술과 배양토지 등 충분한 구비능력 여부를 가려 우선 분양하겠다고 한다.

첨단기술의 밀양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봉저소초,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 봉산물
- 봉기구
- 종봉

밀양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

양봉기자재 전문 판매

- 소상 10매무창 18,000원
- 소상 12매무창 20,000원
- 소광(특제) 800원
- 광식사양기 1,800원
- 채유광 1,000원
- 정화소초광 1,800원
- 격리판 1,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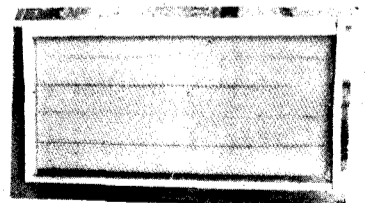


사진 : 정화소초광

상기 판매가격은 임시가격이며 소초광은 전량 밀양양봉원 소초를 사용합니다.

정화양봉원

☎ (0652) 211-4772

74-3263

☎560-200 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9-2. 한 장 희 온라인 · 국민은행 501-01-0082-265 · 우체국401901-0083012 · 농협 501010-52-129746